

4/28(목) 대상 19-22장 성전, 회개의 터 위에!

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은 왕조 없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.
그들은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, 다윗 시대의 넓은 영토(17:11, 18-20장),
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 다윗 왕을 이상으로 하여(理想, 18:14)
새 시대의 국가 상, 지도자 상을 정립해 나갔습니다.

❶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군사적 업적, 광대한 왕국을 이뤘습니다(18-20장).
역대기는 다윗의 공으로 기록된 군사 작전의 숨은 주역들을 조명합니다.
승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전쟁에 적극 동참한 용사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.
새롭게 쓰일 역사는 <왕들의 이야기>가 아니라 <온 이스라엘>의 이야기입니다.
(11:6, 20:1, 삼하8:16, 12:29 비교/ 18:12, 삼하8:13 비교/ 15:25, 삼하5:20 비교).

❷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왕의 소유가 아니라 <하나님의 소유>입니다.
역대기는 <네 집, 네 나라, 다윗의 보좌>라는 표현을(삼하7:16, 왕상2:12),
<내 집, 내 나라, 여호와의 나라, 여호와의 보좌>로 대신합니다(17:14, 28:5, 29:23).
왕은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이며, 백성들은 여호와의 회중입니다(28:5, 대하9:8/ 28:8).

왕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잊을 때 국가와 백성에 큰 재앙이 임합니다(21:3,8).
하나님의 소유권을 침범한 다윗의 인구조사는 나라 전체에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(21:14).
다윗은 <상당한 값>을 지불하고 타작하는 <곳(마름)>을 산 후 제단을 쌓습니다.
<마름>은 그 자체로 <성소, 성전>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.
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건축될 성전의 터가 된 것입니다(22:1, 대하3:1).

다윗이 통회하며 자복했을 때 친히 불로 응답하신 타작마당(21:26).
하나님은 그곳에 세워진 성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.
“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
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
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(대하7:14)”

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은 무엇입니까?

- ❶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까?
- ❷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, 눈물이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대상 19-22장